

1. 선생님의 그림에 입문하신 계기?

어릴 땐 (6.25 동란 전후) 조부모님, 부모님, 삼촌, 8형제, 그리고 항상 더불어 살던 친척들, 비교적 대가족이 사는 전통적인 중류의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서화수집과 서예는 할아버지의 취미이었고 그것 역시 문인적인 일상의 평범한 수준이었다. 자연스럽게 아버님, 삼촌도 할아버지께 서예와 고전을 배우시고, 당시 우리가 살던 한옥의 주렴과, 현판들은 가족들이 틈틈이 함께 빚어 만든 것들이었고 지금도 그것들을 만들던 그때의 모습들은 뇌리에 선명하다. 이런 환경들, 할아버지의 풍류적인 삶 혹은 예술에 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아버님은 최근까지 평생 서예를 즐기셔서 전문가적인 수준을 이루셨고, 삼촌과 형님도 서예 혹은 그림을 즐기셨다. 성장하면서 형제들도 미술의 영역들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어 여동생들 가운데 셋은 조각가, 화가이고, 한명은 미학을 전공한 학자이다.

나 역시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재능을 선생님에게서 인정을 받아 미술반 활동(당시 모교에서는 특별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을 했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계속되었었다.

2. 선생님의 작품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대학을 졸업, 졸업 우리는 일반교육뿐 아니라 미술교육 또한 근대의 서구 미술을 배워 왔고 졸업 후에도 졸업 서구현대미술의 변화에 적응 해 보려고 노력했다. 물론 대학 시절의 고민은 한국인인 나 자신에 타당한 예술형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보통일이 아닌 엄청난 큰 일일뿐 아니라, 내 개인을 넘어 우리들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었다.

묘하게도 내가 겪어 온 미술의 행적들을 뒤돌아보면 의도적으로 우리전통을 구현하려고 억지작업을 했다고 하기보다, 무던히도 서구현대미술을 이해하고 극복해서, 어떤 수준의 작업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차별성을 가지게 된 것을 보면, 자라고 살아 온 삶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 이것은 나의 예술수준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천재가 아닌 둔재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어렵듯이 느끼고 홀로 미소 지을 뿐 후회의 수준은 아니다. 나는 친구들과 우스운 얘기를 나누어도 뒤늦게 알아채고 5분후에야 웃는 둔재였다.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월남 그리고 오키나와를 포함한 한자문화권)의 정신문화는 물론 다른 지역과 많이 다른 정신문화의 흐름이 있다. 크게 보면 토착종교, 노장사상, 공맹사상, 불교사상, 성리학 등은 서로 영향을 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와 가치부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선조 사상의 가장 큰 흐름은 성리학과 실학에 이르는 변화들이라고 하겠다. 나

는 노장에게서 삶의 오묘함을, 공맹에게서 따뜻함을, 불교에서는 커다람을, 서양종교에서는 사랑을, 성리학과 실학에서는 우주론 혹은 양자론과 POP을 배우고 있다.

3. 김성희 홍익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사물(대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 주목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천착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공 속에서 가공스럽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두렵고 공포스런 일들이지만 우리는 슬쩍 잊고 있을 뿐이다. 내가 하는 일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백일 천하에 활짝 뒤집어 들쳐 내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살짝 드러내어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즐거운 일일수도 있다는 생각과 멋있게 즐기자는 행위들이다. 풍류다.

4. 1972년 닭을 이용한 퍼포먼스 <Untitled>를 펼치신 적이 있는데 이유와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73년에도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선술집에서 펼친 행위예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닭의 퍼포먼스는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닭의 모습을 보고 작업으로 전환한 작업인데, 미술관 공간에 닭을 구이통과 함께 며칠을 사육하고 그 광경을 연속적으로 흑백사진으로 촬영, 구이통과 닭의 발자육, 벽면의 사진을 함께 설치하고, 닭은 본래의 농장으로 돌려보낸 작업이다. 관객들은 그 흔적들만 보고 닭의 실재모습은 각기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작업이다. 작가의 어떤 정서를 표현한 작업이 아니라 관객이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명석을 깔아 놓은 것이다. 당시 파리미술의 흐름은 전통적인 근대미술에 젖어 있던 시기라서 많은 관객들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1973년의 생애의 첫 개인전에서는 화랑을 선술집으로 만든 것이었다. 우리들이 자주 드나들던 이른바 막걸리 집, 오랫동안 사용해 온 판자 테이블, 의자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들이 담겨 있는, 담배꽂초들을 짓이겨 태우거나, 냄비들이 판자를 태우고, 사람들이 비벼대고, 행주로 한없이 닦아 내어,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난 무엇인가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 물건들을 그대로 화랑에 옮겨 놓고, 관객들이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선술집을 일주일 동안 차렸던 작업이다. 이 작업 역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하고 사고를 하게끔 명석을 깔아 놓은 작업이었을 뿐이다.

나는 명석을 어떻게 잘 깔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작가이다.

5. 1980년대 후반에는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운필기법을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원에서 사슴과 오리 등을 관찰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품에 반영되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차이중의 하나는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을 관객에게 덮어 씌우는 자기중심적인 미술과, 작가와 관객이 수평적으로 함께 작업과 관련하는 주관관 최소화하는 미술의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함한 관객들이 편히 놀 수 있는 명석을 잘 까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운필이란 내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머릿속의 관념 혹은 개념들 같은 잡다한 생각들을 멀리하고 신체와 맑은 정신, 환경이 조화롭게 일체화 한가운데 펼쳐지는 기운의 행위 혹은 필획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런 행위와 필획들은 관객들에게 관념이나 개념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정신과 신체, 즉 전신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나이가 먹을수록 직관을 더욱 믿게 되는 것 같다.

동물원에 다니던 경험에서 오리, 사슴 그리고 나룻배 따위의 이미지들은 말 그대로 차용한 이미지들이고 포인트는 직관에 의한 행위나 필획들이다.

6. 1990년 말의 작품 <섬에서>와 <강에서>라는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섬에서>나 <강에서>는 한때 섬으로의 여행, 강으로의 여행 후 작업을 한 것들인데, 제목은 섬, 나룻배 따위를 인생을 비유한 추상적인 단어로써 중요하진 않다.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책에서 본 양자강 사진을 일주일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통한 확인은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감동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루어진 캔버스위의 필획들은 지금 다시 실현할 수 없는 신비한 리듬이라고 홀로 생각하고 있다.

7. 외국생활을 오래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작품에 나타났나요?

서구의 젊은 예술가들의 삶들이 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미술계 구조의 편린을 경험해 봐서, 지금의 내 외로운 삶과 작업이 나에게 가장 분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나이에 걸 맞는 정리도 잘 하고 있다.

8. 사물의 본성을 밝히는 격물格物과 성리학의 근본개념인 이理와 기氣의 개념을 일반인들이 작품을 통해 느끼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분황사1과 2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고전인 <대학>에서 정치철학에서,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나온다. 인간이란 천하 만물과 함께 그 구조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신을 알려면 사물들을 잘 궁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많이 잘하면 홀연히 세계를 관통하게 된다는 것이고, 사물과 한 몸이 되면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격물에 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다양하다. 나는 어떻게 되었던 격물의 방법들은 성정을 맑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괜찮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고전에서 음양론, 불교의 무, 노장의 허, 성리학의 이기론 등은 형체의 취산, 순환으로 우주를 해석하는 논리들이다. 놀라운 것은 현대물리학의 양자론 혹은 우주론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해석들이란 것이다. 서구의 근대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근대철학보다도 훨씬 진보한 사상들이란 것이다

분황사 작업은, 어느 날 경주의 한 골동가계의 마당에서 팽개쳐져 있는 분황사의 잔해들을 구입해서 작업실에 가져다 둔 것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다. 몇 개의 새 목재를 보강하여 구조물을 화랑에 설치하고 주변에 닭의 박제를 몇 마리 하얗게 칠하여 배치해 둔 것이다. 오래 된 사찰의 기둥들과 새로운 목재들과의 조합, 그리고 영혼이 달아난 닭의 박제, 그 사이를 나 혹은 관객들이 스쳐 다닌다. 관객들은 어떤 생각, 느낌을 갖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 공간의 어떤 신비스런 전율을 느낄 수 있었다.

9.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오랜 시간 다양한 작업을 해 와서 기억에 딱히 잡히는 것이 없다. 앞으로의 할 작업에 정신이 가 있다.

10.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고언?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고 예술에의 길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어렵듯이나마 뜻을 세우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예술가는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이런 멋진 사람들을 항상 보고 싶어 한다.

11. 그림을 그리는 외에 가장 즐겨하시는 것은?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끔, 사람들이 살아갔고 오랜 세월이 흐른 곳, 혹은 소박한 삶을 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 여행한다.